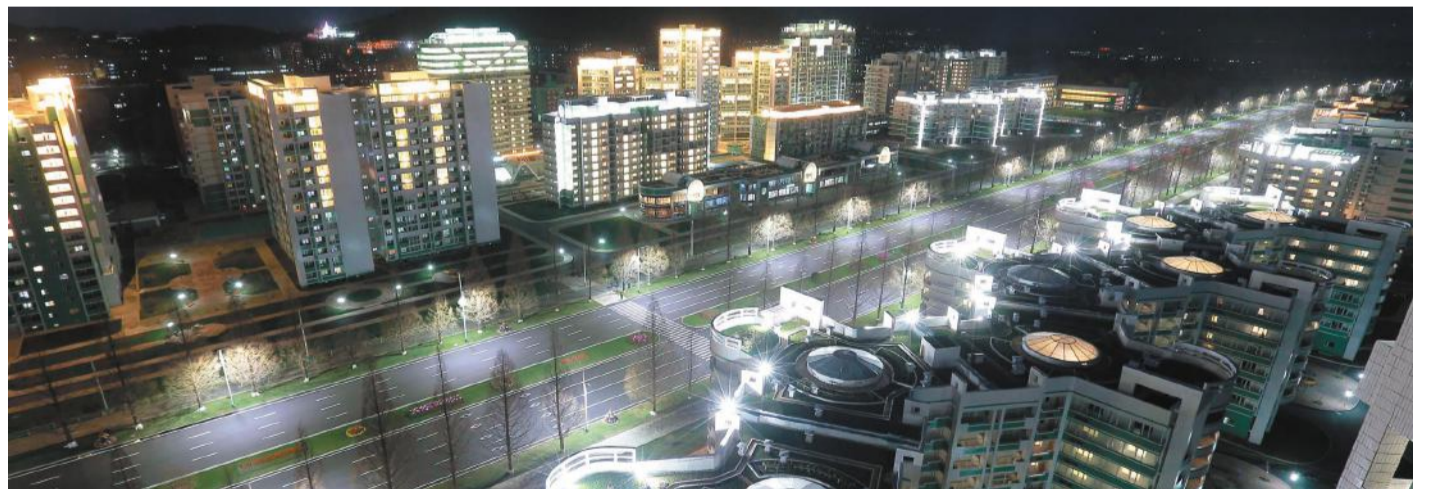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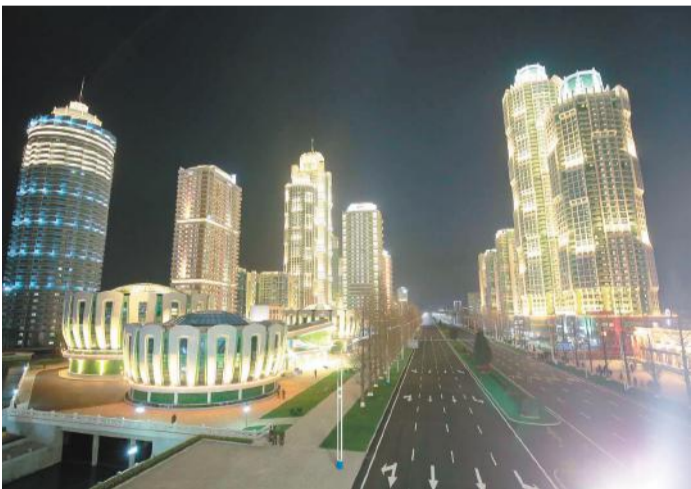


최 후 승 리 의 려 명 이 밝 아 오 는 거 리



이역의 하늘아래 굽이치는 그리움의 마음, 따르는 마음

—태양절을 맞으며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을 진행—

백두산위인들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려있는 중국의 길림에서는 태양절을 경축하는 재중동포들의 다채로운 행사들이 있었다.

4월 15일 불세출의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재중동포들은 길림옥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에 향기그윽한 꽃바구니들과 꽃다발들을 올리고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이어 길림옥문중학교의 뜻깊은 교정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05돐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앙보고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보고대회에는 심양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평사와 총평사관성원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차상보부의 장을 비롯한 총련합회 일군들과 산하 조직 대표들, 길림시조선공민들과 길림성조선족진흥총회 오장권회장을 비롯한 동포들, 동북3성에 상주하고있는 조국의 일군들과 가족들, 길림성인민정부의사관공실 주임과 길림성공안국출입경관리국 국장, 길림옥문중학교 교장을 비롯하여 각계층 사람들이 참가하였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주악으로 시작된 보고대회에서는 차상보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의 보고가 있었다.

보고자는 아버지수령님의 동상을 모신 길림옥문중학교에서 태양절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고있다고 하면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온 겨레의 절절한 념원에 받들려 민족의 태양이 솟아오른 대동운의 날이며 인류의 앞길에 자주시대의 려명이 밝아온 경사의 날

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천대와 압박을 속명으로 여기며 시대박으로 멀리 밀려나있던 인민대중에게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

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위대한 사상을 안겨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의 진두에서 20세기를 자주의 세기로 빛내이신 위대한 수령님은 인

류의 심장속에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고계신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오늘 우리 민족은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의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민족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어 태양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만방에 떨치고 있다고 하면서 재중조선인들은 또 한반도의 질세의 위인을 모신 영광과 행복으로 가슴 불태우며 그이의 령도를 일심으로 받들어나갈 충정의 결의에 넘쳐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신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주기 위한 애국충정의 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고 호소하였다.

보고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결의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보고대회에 이어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와 사진 및 도서전시회, 태양절경축음악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글 및 사진 심용석



태양절경축 료녕지구협회 결의편지채택모임 진행

태양절경축 료녕지구협회 결의편지채택모임이 13일 중국 심양에서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최수봉 부의장, 김연주국장, 료녕지구협회 회장을 비롯한 재중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절세의 위인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함께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기상을 만방에 떨쳐가시

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일심으로 받들어 부강조국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 한몸 다 바쳐 나갈 굳은 결의로 충만되어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결의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갈채속에 채택되었다.

이어 《인민을 위한 령도의 나날에》라는 제목으로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었다.



조선민족의 긍지를 안고

길림에서 진행된 재중동포들의 태양절경축행사에 참가하고보니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하다.

한평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아버지수령님께서 이곳 길림에도 위대한 애국의 발자취를 새겨오셨었다.

하기에 수령님동상이 높이 모셔진 이곳 길림옥문중학교로는 중국의 각지에서 사는 많은 동포들이 해마다 모여든다. 우리는 몸은 비록 이역땅에 있어도 언제나 아버지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산다는 생각으로 하여 마치 조국 땅에서 사는 심정이다. 이 긍지, 이 자랑을 안고 나는 지금까지 해외동포사업에 전심하였다.

나는 앞으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거룩한 발자취가 새겨져있는 길림에서 아버지수령님의 동상을 모시고 사는 재중조선공민의 본분을 다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애와 불멸의 업적에 대한 선전을 힘있게 벌려 각계층 동포들속에 태양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새겨주겠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유산인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오로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해외교포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가는 데 나의 적은 힘이나마 강그러 바쳐가겠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길림지구협회 부회장 홍영순



태양절경축 《4월의 봄 음악회》 진행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105돐경축 《4월의 봄 음악회》가 13일 중국 연길에서 진행되었다.

음악회가 진행되는 연변가무단국장은 절세의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모여온 사람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연변학림악단의 단장이며 예술감독인 박학림이 지휘하는 합창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로 시작된 음악회 무대에는 녀성독창 《내

마음 내 조국》, 《노래하자 금강산》, 남성독창 《내가 지켜선 조국》, 민속기악합주 《혁명가요련곡》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일제식민지통치하에 신음하던 우리 나라를 세계 만방에 빛내여주시고 조국통일과 인류자주위업수행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한 음악회는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 주었다.

해마다 찾아오는 4월의 봄명절이지만 올해의 태양절은 우리 재중동포들로 하여금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더욱 가슴설레이게 한다.

하늘에 태양이 있어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만발하는 것처럼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모시었기에 우리 공화국이 세계에 빛을 뿌리고있는 것이다.



조국의 튼성번영에 디딤돌이 되고자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우리 재중동포들의 신뢰와 경모심은 어제와 래일도 변함이 없다.

우리 재중동포들은 사상도 령도도 품모도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의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신념의 기둥으로 굳게 믿고 따르고있다.

몸은 비록 조국과 멀어져있어도 우리 재중동포들의 마음은 언제나 조국에 가있다.

내가 려명거리건설과 북부피해지역, 조선장

애자보호련맹을 비롯하여 여러곳에 지원사업을 하고 단동민공원무역유한공사를 세운것도 어머니 조국과 숭경을 같이하고 우리 민족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는데 자그마한 보탬이라도 주기 위해서였다.

나는 앞으로 김일성민족의 한 성원이라는 긍지를 안고 조국통일과 부강조국건설에 적은 힘이나마 바쳐가겠다.

재중조선경제인총련합회 회원 송영철

《우산》을 들고 《비》를 맞는 남조선

얼마전 미국 부대통령이 남조선을 행각하고 돌아갔다.

그는 체류중 서울 삼성동에 있는 총리관저를 찾아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면담을 하였다. 그날은 비가 내려 황교안이 직접 우산을 들고 마중나가 미국 부대통령에게 우산을 씌워주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뉴시스》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대통령이 한우산을 썼다.》고 자랑삼아 전하였다. 마치 미국과 남조선이 《한우산》을 쓰고있는 《긴밀한 동맹》임을 과시하려는듯 황교안은 상전을 만난 자리에서 《공고한 《한》 미간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니 뭐니하며 갖은 아양을 떨었다.

그날 우연히 한우산밑에

서 비를 그었지만 남이 보기엔 그것은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꼴볼견이었다.

지금까지 남조선과 미국이 언제한번 《우산》을 같이 써본적이 있었던가. 말은 그럴듯하게 《동맹》이니, 《보호》니 떠들어왔지만 《비》를 막아주는 《우산》을 쳐든것은 남조선이었고 그 《우산》을 혼자 써온것은 미국이라 해야 옳을것이다. 남조선은 미국을 위해 《우산》만 펼쳐두고 저는 오가는 위협한 《비》를 흠뻑 다 맞곤 하였다.

수십년전 미국이 월남에 대한 침략전쟁을 도발하였을 때에도 상전의 요구에 따라 수많은 사병들을 파병하였다가 미군의 대포박신세, 개죽음시킨 것은 력사에 생동히 기록되어있다.

지금의 《싸드》 배치놀음도 마찬가지이다.

박근혜를 비롯한 친미보수패거리들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남조선에 퍼놓으려고 하는 《싸드》라는 《우산》은 남조선이 아니라 미국이 핵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한것이다.

조선반도에서 군사적충돌이 발생하고 전쟁이 터진다면 그 작고 구멍이 숭숭 뚫린 미국제 《싸드》로는 떨어지는 포탄소나기, 핵비를 도저히 막을 수 없다는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일치한 견해이다.

《싸드》는 서울도 지켜줄수 없고 남조선전체도 보호해줄수 없는 한갓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오직 미국으로 날아갈 로켓, 핵탄들을 막기 위한 미용 《우산》일뿐이다.

남조선은 오히려 그 《우산》때문에 주변나라들의 미사일공격목표가 되고 대국들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면 재난적인

1차타격을 면할수 없게 되었다.

미국이 핵비를 맞지 않게 하려고 자기는 온갖 위협을 다 무릅쓰고 《싸드》라는 우산을 퍼들려고 하는 남조선보수패당의 행위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것인가.

지금 미국이 조선반도에 위협천만한 전쟁불구름을 몰아오고있는것을 놓고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미국은 《동맹》이라고 추켜세우는 남조선의 의사도 알아보려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저들의 침략적이익을 위해서라면 조선반도에서 전쟁도 서슴없이 도발할수 있다는것이 지금 누구나 느끼는 엄연한 현실이다. 그 모험적인 《선제타격》이 전면전쟁으로 이어지고 남조선의 온 땅덩어리가 참혹한 재난터로 화하고 남녘인민들의 운명이 칠성판에 올라도 미국은 상관없다는 자세이다. 이것이 제국주의강도배인 미국의 본색이다.

《동맹》이라는 《우산》은 헤쳐보면 미국만을 위한 《우산》인것이다.

그 《우산》에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운명을 맡겼자들 녹아날것은 친미보수패거리들이고 재난을 당할것은 남조선인민들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최근 남조선에서는 미국이 운운하는 《대북선제타격설》이 《4월전쟁위기설》, 《북북격설》로 이어지면서 전쟁공포증이 확대되고있다.

바빠맞은 박근혜잔당들은 《미국과 우리의 입장은 다르다.》느니,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느니 떠들며 민심을 달래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문제는 보수세력들이 미국에 의해 조장된 《4월전쟁위기설》이 현실적으로 눈앞에 닥친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한사코 부정하면서도 《북핵 위협》이니, 《도발》이니 동족을 결코 《안보위기》만은 계속 내들리고 있다는데 있다.

참으로 고약한 심보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의 진짜 《안보위기》는 어디서 오는가. 박근혜잔당들이 운운하는 《안보위기》니, 《안보불안》이니 하는것은 현실에 대한 파렴치한 부정정거기에 다시금 말하지 않을수 없다.

지금 남조선에 《안보위기》, 《안보불안》을 몰아오는 주범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이 남조선정국의 혼란을 기회로 《키리졸브》, 《독수리》 핵전쟁연습을 그 어느때보다 광란적으로 벌리고있으며 공화국의 《핵위협》을 떠들며 《핵선제타격》을 떠들고 핵동력항공모함전단을 비롯한 본토의 핵전력자산을 조선반도주변에

《안보위기》를 떠드는 대결광들의 속심

공화하여 《4월위기설》을 몰아왔다.

공화국의 정의의 핵은 남조선이 아니라 대조선 적대시정책실현과 아시안지배전략을 위한 미국의 침략적핵을 겨냥한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미국은 도적이 제발 저러한다는 격으로 공화국의 자주권, 자위력행사를 《위협》이라고 떠드는것이다.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협해온 미국의 침략적핵은 《안보용》, 《방어용》이고 공화국의 자위적핵역력은 《위협》이라고 하는것은 말그대로 어불성설이다.

우리 민족은 전쟁의 참혹성에 대해 미국이 강요한 1950년 조선전쟁을 통해 충분히 겪어보았다.

지금의 전쟁은 그때와는 대비할수 없다.

세계의 전문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파괴된 유럽을 원래대로 복구하는데 30~50년이 필요했다면 세번째대전이나 세계열핵전쟁이 발발하는 경우에는 세계가 100년, 200년간의 원시상태를 겪게 된다고 하였다.

만일에 공화국이 정의의 핵을 보유하고 강화하지 않았더라면 미국은 최근에 아시아의 어느 주변국가에 감행한 미사일공격보다 더한 핵공격을 조선반도에 퍼부었을 것이다.

그로하여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제일 먼저, 제일 큰 참화를 당할것은 남조선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도 성주의 《싸드》철폐투쟁, 합동군사훈련과 《선제타격설》로 조성된 전쟁위기를 반대하는 등의 반미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미국의 리익이 아니다.》, 《〈한〉 반도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안전과 평화가 우선이다.》고 하면서 《양키고 홈》(Yankee Go Home), 《아메리카노》(America No)의 함성을 높이 울리고있다.

력사와 현실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남조선에 도래한 《안보위기》, 《안보불안》의 근원이 무엇이고 그 해소의 방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했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잔당들은 미국의 침략의 핵을 수호신으로 여기고 동족의 정의의 핵을 《위협》으로 묘사하면서 《안보위기》, 《안보불안》을 떠들고있다.

부안하건대 남조선에 닥친 《안보위기》, 《안보불안》의 현실적근원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전쟁위협이다.

남조선의 《안보위기》, 《안보불안》은 박근혜잔당들이 사대굴종과

동족대결로 저들의 잔명을 부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확대시키고있는 흉살이기도 하다.

박근혜의 파면, 구속과 함께 그 잔당들은 미국에 더욱 매달리고 서로 야합하고있다.

치욕의 《한미동맹》 구걸이 그 하나이다.

원체 미국의 사전에는 저들의 안보라는 개념만 있을뿐 그 어떤 나라, 어떤 《동맹국》의 안보파위는 없다.

미국의 리익과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동맹국》의 안보는 저들의 애완관계의 목숨만큼도 여기지 않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하지만 박근혜잔당들은 회세의 악녀에 대한 탄핵이 기정사실로 되자 제일먼저 《안보위기》를 부르짖으며 미국이 저들까지 버릴가봐 《한미동맹강화》를 애걸복걸하였다.

《싸드》 배치강행은 박근혜잔당들이 떠드는 《안보위기》론의 허상을 발가놓는 실체이다.

미국이 인정하는것처럼 과학적으로, 실천적으로 확증이 안된 《싸드》로는 소형화, 다종화, 정밀화된 공화국의 자위적핵역력을 막을수 없다.

그것을 한사코 남조선에 배치하겠다는것은 미국이 조선반도주변국들을 시야에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핵무기론도 모자라 이제...

남조선에서 미국의 생화학전책동이 더욱 로골화되어 사람들의 불안을 자아내고 있다.

남조선언론들이 폭로한데 의하면 지난 5일 미국은 그 무슨 《슈퍼터 계획》의 추진을 위한 장비들을 부산항에 끌어들었다고 한다.

이것은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참화도 모자라 생화학전책의 불구름까지 들쭉우려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이다.

《슈퍼터 계획》이라는것이 국제적으로 금지되어있는 생화학무기들로 다른 나라들, 특히는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미국의 전쟁도발책동의 일환이리는데 대해서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슈퍼터 계획》에 대해 그 누구의 《생화학전에 대응하는 체계》라느니, 《방어와 보호》를 위한 체계라느니 뭐니하며 양대가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격으로 뻔뻔스럽게 놀아내고있다.

오래전부터 생화학무기를 침략과 인간살육을 위한 주요수단으로 여겨온 미국은 그 실현을 위한 위협천만한 생화학무기실험

을 제 나라방도 아닌 남조선에서 진행하여왔다.

미국이 지금까지 조선반도에서 우리 민족을 상대로 하여 벌려온 반인륜적인 세균전만행들은 영원히 지울수 없는 죄악의 흔적으로 남아있다. 최근년간에 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남조선의 오산미 공군기지에 몰래 끌어들이 물의를 일으킨것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미군은 《슈퍼터 계획》에 따라 통산과 오산, 평택을 비롯한 남조선각지의 미군기지들에 탄저균, 페스트균을 비롯한 각종 세균과 비루스를 끌어들이 생물무기실험을 대대적으로 벌려왔다고 한다.

남조선을 실험장으로 삼아 생화학무기를 완성하고 그것으로 공화국을 침략하려는 미국이야말로 조선민족말살을 노린 살인마들이 아닐수 없다.

문제는 미국의 위협천만한 생화학전책동에 적극 동조해나서는 남조선호전광들의 쓸개빠진 망동이다.

미국의 부추김을 받은 남조선호전광들은 오래전부터 생화학무기개발을 정책화한데 기초하여 그 연구와 생산을 본격적으로 추진시켜왔으며 미국으로부터 신형생화학무기들을 대량적으로 끌어들이고있다.

지금 남조선땅은 미국의 생화학무기실험장뿐아니라 거대한 오염지대로 변해가고있다.

미군은 통산기지에서만도 지난 25년간 84건의 기름류출사건을 발생시켜 수많은 농경지들과 주민

지대들을 황폐화시켰으며 통산지역의 지하수오염 등 심각한 환경오염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뿐이 아니다.

2011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미군기지들에서 석유류에 의한 오염은 허용한계의 101배, 중금속 오염은 152배로 나타나고 미군기지들에 기름을 공급하던 452km의 거리에 묻혀있는 송유관주변지역의 오염도는 허용수치의 10~20배를 훨씬 넘었다고 한다.

미군기지들에서 독성물질들을 련이어 류출시키고있는것은 남조선땅을 독성물질처리장으로 황폐화시키려는 용납 못할 최악이다.

그러나 미군은 군사기지들에서 대기과 토지오염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사죄나 보상은커녕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고있다.

이에 격분한 남조선인민들은 《통산이 기름법석의 땅이 되어 죽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환경오염속에서 살았다》, 《오염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은폐해온 미군이 막대한 정화비용까지 남조선국민의 혈세로 충당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남조선강점 미군을 강력히 규탄하고있다.

제반 사실은 미국이야말로 남녘땅을 생화학무기실험장으로, 환경오염지대로 만든 살인마, 침략자들이며 남조선보수패당은 갈데 없는 반역집단이라는것을 똑똑히 말해주고있다.

김연희



죄수가 어떻게 된다

최근 남조선 역도년의 행악질에 서울구치소 소장은 박근혜가 구속되던 날과 토요일은 물론 면회가 금지된 일요일에까지 출근하여 면을 만나주었다고 한다. 범죄자가 더럽다고 하면 깨끗이 청소해주고 오라 가라 하면 두말없이 설 기며 오고가는 서울구치소측의 행동은 범죄자를 관리하는 감시자인지 아니면 범죄자의 수족인지 분간조차 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야당들과 사회 각계에서 《박근혜는 범우에 군림하던 버릇을 못 고쳤다.》, 《기가 막힌다.》고 하면서 박근혜와 사법당국에 대한 비난과 저주의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나온 것은 당연하다. 바빠맞은 검찰과 서울구치소가 《도배작업은 구치소 자체의 판단으로 진행한 것》이라느니, 《특별대우 없다.》느니 하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민심의 분노만을 더욱더 자극시킬 뿐이다.

단평 가마귀 백로 된 다?

우리 속담에 오래 살면 머느리얼굴에 수염나는것을 본다 고 했다. 남조선에서 《자유한국당》이 노는 꼴이 속담 그대로이다. 리승만독재가 거꾸러진 4월인민봉기의 날을 맞으며 19일 《자유한국당》이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느니, 《4.19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는 싹을 틔웠다.》느니 하고 낮간지러운 소리를 한것을 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발자취를 뒤돌아 찾아가보면 그 뿌리가 리승만과 《자유당》이라는 것은 웬간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전 《새누리당》이 여론의 지탄을 받아 만신창이 되자 살아나 보려고 바꾸어낸 당의 간판도 원조인 《자유당》과 할애비당쯤 되는 《신한국당》의 당명을 합쳐 《자유한국당》이라고 이름지었으리라.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이 리승만독재를 무너뜨린 4.19봉기에 대해 《경의》니, 《민주주의의 싹》이니 했으니 머느리얼굴에 수염났다는 것만 큼이나 신기한 일이 아닐수 없다.

민심의 징벌에서 벗어나보겠다고 《박근혜혼적지우기》를 하더니 이제는 족보까지 통채로 바꾸려는 것인가. 그러나 변신술이 아무리 능하다 한들 체질적속성은 바꿀수 없는 법이다. 《선조들이 어렵게 지켜온 자유와 민주주의는 극심한 안보위기에 위협받고있다.》, 《자유민주주의수호에 앞장서겠다.》...

《자유한국당》의 입에서 나온 이 소리가 《썩은 정치 갈아보지.》, 《독재 <정권> 타도.》, 《통일만이 살길이다.》고 웨치던 4.19의 정신, 오늘의 초불민심을 심히 우롱하는 망발이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박근혜독재 《정권》을 만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부패보수들까지 이 케케묵은 《안보위기》라령을 또다시 늘어놓는것은 동족대결과 미국과의 복침전쟁소동강화로 남조선을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소리외에 다른것이 아니다.

이런 쓸개빠진자들, 부패당을 쓸어버려야 남조선에 새 정치가 오고 평화도 깃드는것이다.

리정남

박근혜의 악폐를 완전히 청산하자 대전에서 17차 시국집회 진행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박근혜퇴진 대전운동본부와 《세월》호참사대전대책회의가 15일 《세월》호참사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박근혜역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공범자구속, 악폐청산을 요구하여 대전에서 17차 시국 집회를 가지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박근혜가 내려가고 《세월》호가 올라왔어도 참사의 증거들은 아직 세상밖으로 나오지 못하고있다고 하면서 박근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였다.

그들은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는데 앞장서온 우병우를 구속할 것을 주장하고 그를 구속하지 않은 피리검찰을 규탄하였다.

그들은 역사의 주인, 사회의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독재 《정권》이다 라는 이름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새 《정부》에 대한 결정권은 초불혁명의 주역인 국민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박근혜를 퇴진, 구속시킨 1차 초불혁명의 승리를 쟁취하였다고 하면서 이제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권》, 박근혜악폐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는 《정권》, 민주와 평등, 평화와 자주통일정책을 가진 《정권》을 수립하는것으로 2차 초불혁명의 승리를 안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시내에서 시위행진을 벌렸다.

한편 박근혜퇴진 대전운동본부는 박근혜의 악폐청산과 6대긴급과제, 개혁립법 등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새 조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사기자



한편 부패보수세력들이 벌써부터 박근혜의 사면에 대해 떠드는가 하면 겹찰이라는것이 《세월》호침몰당시 박근혜의 7시간 행적을 비롯한 주요혐의를 반영하지 않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한것도 여론의 비난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감옥에 처박혀 숨쉬는 미이라신세가 된 역도년의 눈치를 보며 특혜를 베풀어주고 그 진상이 날날이 드러난 범죄사실까지 축소은폐시키며 비호해나서는것은 일간망둥이들만이 할수 있는 황당한 추태가 아닐수 없다.

재판에 기소되어 형벌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는 박근혜를 비호하는 보수당국의 망둥은 그들이 앞에서는 민심의 규탄이 두려워 역도년을 엄하게 처벌한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꾀하고있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하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대려 기울었다.

박근혜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리라는 초불민심의 요구는 누구도 거역할수 없으며 죄는 지은 데로 가기마련이다.

송명수

재집권실현을 위한 보수세력들의 무분별한 발악

남조선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정치세력들이 선거경쟁에 돌입하였다.

가관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비롯한 지난시기 집권여당이었던 보수세력들도 이번 선거판에 뛰여든것이다.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을 일삼으며 독선과 불통정치를 일삼다 탄핵당할박근혜에게 추종하며 온갖 반역죄를 저지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과 같은 보수세력들은 사실상 박근혜의 공범자, 부역자들로써 탄핵심판에 따른 이번 선거에 머리를 내밀 자격조차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과 같은 보수세력들이 저들이 저지른 죄과를 시치미를 떼듯 모르쇠하며 후보들을 내세워 《대선》경쟁에 나선것은 그야말로 창피도 체면도 모르는 철면피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문제는 박근혜와 같이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정치오물들이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해서나 이겨 보수세력들의 재집권을 실현해보려고 피를 물고 날뛰고있는것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과 같은 보수세력들은 저들의 재집권야망실현을 위해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는 《종북좌파》이니 뭐니 하는 《색갈》 딱지를 붙이며 비방증상에 열을 올리는 한편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는 《작대기라도 필요하다.》고 떠벌이며 후보단일화를 이루려는 움직임도 보이고있다.

부패보수세력들은 《보수가 재집권하지 못할바에는 중도 <정권> 이 탄생하는것도 나쁘지 않다.》, 《최악을 피하려면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서 진보세력들사이에 해기를 박는 유치한 놀음도 벌리고있다.

박근혜탄핵사태로 파멸의 위기에 처한 보수세력들이 《대선》을 앞두고 벌리는 이러한 놀음들은 그들이 진보민주세력들에 대한 《정권》교체를 막고 어떻게 해서나 재집권을 실현해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역사는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이다.

1960년의 4.19인민봉기와 1979년의 10월인민항쟁의 열매들이 박정희나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군사강패들의 군화발에 무참히 짓밟힌 뼈저린 교훈은 진보개혁세력들이 련대하고 단합하여 이번 《대선》에서 사대와 매국만을 일삼던 온갖 《적폐》세력들을 청산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박근혜를 탄핵시킨 초불민심의 요구도 진보개혁세력들이 련대하고 단합하여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한다는것이다.

권력에만 눈이 멀어 《정권》교체를 바라는 민심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 어느 정치인도 두고두고 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죽을 때까지 《종북》라령

막다른 통치위기가 조성될 때마다 공화국을 걸고드는 모략사건을 조작하고 거기에서 출로를 찾아보려고 하는것이 남조선보수세력의 상투적수법이며 체질화된 악습이다.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지금 남조선의 보수패당은 박근혜역도의 탄핵과 구속사태로 목숨이 경각에 달한 저들의 잔명을 부지할 출로를 《종북》소동에서 찾으려는 비렬한 음모책동에 매달리고 있다.

극우보수패당은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이 《종북》세력의 정치공작이 빚어낸 란들》과 《북의 지령을 받는 친북좌파세력의 음모》에 의한것이며 초불투쟁참가자들은 《북의 배후조종을 받는 종북세력》이라고 떠들어대면서 《친북좌파세력을 척결》하고 다가오는 《대선》에서 보수세력이 총결속하여 《친북좌파》의 집권을 무조건 막아야 한다며 광기를 부리고있다.

실로 어이없고 비렬하기 짝이 없는 행위이다.

박근혜의 비참한 운명은 그 누구의 《배후조종》이나 《정치공작》에 의해서가 아니라 썩고 병든 사회를 끝까지 부지해 보려던 보수패당이 스스로 빚어낸 참극이다. 이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4년전 남조선보수패당은 《유신》독재자의 후예인 박근혜가 집권하면 《제2의 한강변의 기적》이 일어나고 파란된 경제가 회복되어 《국민행복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허황하기 짝이 없는 《박정희향수》를 뿌려대며 민심을 기만하고 온갖 부정협잡과 음모적인 방법으로 끝끝내 박근혜를 《대통령》 자리에 앉히었다.

때를 만난 박근혜는 기회를 놓칠세라 박정희의 《명예회복》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유신》독재를 미화하는 놀음을 미친듯이 벌렸는가 하면 파쇼폭압과 반인민적악정으로 남조선을 인간생지옥으로 완전히 전락시켰으며 외세굴종과 사대매국행위로 겨레의 가슴에 참을수 없는 치욕을 들뜨혔다.

남조선전역에 타오른 거대한 초불바다는 이에 분노한 민심의 폭발이었으며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은 각성된 인민대중의 단호한 징벌이었다.

그런데도 보수패당이 박근혜의 파멸을 《북의 배후조종》에 의한것으로 매도하는것은 공화국에 대한 용납 못할 도발인 동시에 초불을 들었던 절대다수 남조선인민들모두를 《종북세력》으로 몰아대



본사기자

